

영호남, 상생 협력으로 새 시대 연다

전남·경북도, 27~29일 순천만정원박람회장서 대축전 개최 문화예술로 소통·융합...상생장터·청소년 끼 페스티벌 등 다채

전남도와 경북도가 27일부터 3일간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장 일원에서 영호남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대도약에 앞장서는 '영호남 상생협력 대축전'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동행, 융합하는 영호남'을 주제로 열리는 '영호남 상생협력 대축전'은 지난해 10월 경북도청 새마을관광 일원에서 개최한데 이어 이번엔 전남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와 경북도가 문화예술로 서로 소통·융합하며 상생과 협력에너지를 모아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고자 마련했다.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은 개막식, 영호남

화합콘서트, 영호남 상생장터, 청소년 끼 페스티벌, 여성단체 및 새마을회 교류, 열혈 청년 페스티벌, 문화예술교류 전시회, 영호남 종가·고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막식은 경북예술단과 전남도립국악단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 도지사의 명예도민증 전달, 케이(K)-무비 제작 지원으로 영상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포지드필름스와 협약, 상생화합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동서 화합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화합 콘서트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콘서트엔 영호남 출신 가수인 송가인, 박진도, 김호중, 은가

은, 김태우, 코요테 등 유명 가수 9팀이 출연해 분위기를 고조해 나간다.

또 전남·경북도의회는 '상생발전 화합대회', 전남·경북도교육청은 '영·호남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해 소통·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밖에 대축전 기간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전통예술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 대축제'를 함께 개최해 영호남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기후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지난해 경북에서 개최한 열기를 이어 전남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가 전남과 경북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000원 아침밥'으로 든든한 시작 25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민영돈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1000원 아침밥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는 6월 19일까지 주 4회 진행되는 1000원 아침밥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마트24 등이 협력해 마련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시,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층간소음 갈등 조정

'이웃사이서비스' 5~12월 시범사업...소음 조사·상담 등

앞으로 광주에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주민도 층간소음 조사·상담·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와 환경부는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시범사업을 5~12월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선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이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상담과 현장진단을 거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해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7월부터는 현재 서울에서만 실시되는 야간 층간

소음 방문상담도 실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도 5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다.

또 광주 북구에서는 구청과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관리인에게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체

당일부터 3개월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서비스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쓰레기 소각장 입지에 1000억 지원

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공모...6만6000㎡·주민동의 50% 이상

광주시가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입지 지역에는 1000억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5일 650t 규모의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소각)의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소각)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비하고 광주시 자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통해 시설계획 등을 검토해 왔다.

신청 후보지는 부지면적 6만6000㎡(자연녹지 지역 기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제한받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응모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은 자치구, 개인, 문중대표, 단체 등이 할 수 있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6월 2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광주시 자원순환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주민 수용성을 위해 주변 지역 등에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600억~800억원을 투입해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숙원사업

과 입지 자치구 교부를 위한 500억원 등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타 지역 선진시설 견학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지역 사례 등을 통해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상반기 중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후보지 신청결과에 따라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입지가 선정되면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062-613-1682)으로 하면 된다.

손인규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는 도시환경 역량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입지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을 계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상수도, 103년만에 보급률 100%

무등산 금곡배수지 6월 준공...물 400t 저장 7개 마을에 공급

광주시가 수돗물 공급을 시작한 지 100여년 만에 상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하게 됐다.

25일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무등산 고지대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할 금곡배수지가 오는 6월 준공될 예정이다.

400t 저장 용량의 금곡배수지는 석저·수리·충효·평촌·산장·금곡·배저 등 무등산 일대 7개 자연 마을 331세대에 물을 공급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배수지 준공 후 세대별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급수할 방침이다.

현재 99.95%인 광주 상수도 보급률은 산간 오지 등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극소수 세대를 제외하면 100%를 채우게 된다.

1920년 5월 제1수원지 통수식 이후 103년 만에 통개산 완전 보급을 달성하게 된다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 건설 '순항'

전남도, 연말까지 행정절차·설계용역 완료...내년 착공

전남도는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장산-자라 연도교 설계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24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개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관련 실국장, 토목 분야 전문가인 김호경 서울대 교수 등 10명이 참석해 교량 설계 현황을 청취하고 자문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전남도가 도비 100%로 추진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상교량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장산-자라 간 연도교는 총사업비 1600억원 중

신안군이 50%를 부담하는 등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안군의 의지와 지방도 해상교량 신속 추진을 원하는 전남도의 열의가 맞물려 추진하게 됐다. 전남도는 사업 초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발주했으나 원자재 상승에 따른 경제성 등의 이유로 7회 유찰됨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재빨리 설계 후 일반발주 방식인 기타방식으로 전환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초 착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